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12년 2월호

통권 제 219호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12,1월 교우소식

축 하

- ♣ 출산 - 김홍선·김세동부부 득남
(김문수 집사·박노향 권사의 딸, 사위)
- ♣ 결혼 - 김영룡 군·김경연 양 12월7일(토)
(김희주 집사·강재덕 권사 차녀)
- ♣ 출산 - 정선주 교우(조명자 권사의 딸)
- ♣ 출산 - 김성모 집사·이민정 집사 득녀
(김경엽집사·유혜순권사의 아들,며느리)

별 세

- ♣ 고 이정근 집사 -11월30일 별세,12월2일 장례
- ♣ 고 정복조 집사(김승아 전도사 조모)
- 12월1일 별세, 3일 장례
- ♣ 고 윤순이 씨(원광자 권사, 박윤식 집사 시모)
- 12월15일 별세, 17일 장례
- ♣ 고 조기범 씨(김영이 성도의 부군)
- 12월16일 별세, 18일 장례

입 원

- ♣ 유연준 권사 - 제일정형외과 205호
- ♣ 석정녀 집사 - 서울대병원 9층 402호
- ♣ 황정렬 권사 - 백병원 906호
- ♣ 유란임 권사 - 백병원 1108호
- ♣ 고성구교우(황정희권사의부군)-상계백병원912호

감 사

- ♣ 서우석 집사·윤순미 권사 - 점심식사제공.
- ♣ 민혁근 권사 - 소허당에 방석 기증

- ♣ 윤상구 장로·양은선 권사 - 점심식사 제공
- ♣ 정세장 집사- 독거노인을 위한 쌀 기증(70포대)
- ♣ 조동훈 집사·김정순 권사 - 점심식사 제공

기 타

- ♣ 행복나눔 특강 수료 -
강춘자 김경호 김민수 김영분 김윤성 동혜선
류현일 안부장 유준자 유혜정 윤상구 이 진
이경복 이명진 이상주 이선옥 이순옥 이윤희
이재영 이춘우 임중규 장문자 장정희 전정임
정용연 최명자 최묘희 최서섭 최희운 (29명)
- ♣ 유아세례자- 서은유(서동진·박민아)
최 건·최윤영(최성진·김기연)
▪ 세례자- 김정순,박나현,박윤자,안영옥
이기현, 임충식, 오은수 (7명)
- ♣ 은퇴자- 장문자 장로, 강춘자 권사, 최령자 권사
▪ 추대자- 광원섭 명예집사, 한준기 명예집사
이옥순 명예권사, 박종희 명예권사
- ♣ 일대일제자훈련 양육자반 수료자 -
강희선, 강춘자, 김형주, 민용규, 민혁근,
박은미,박진령, 윤정희, 이선옥B, 조성아 (10명)
- ♣ 장년성경공부(로마서) 수료자
▪ 1반(8명) - 김행미, 남택권, 박유진, 박은미
신지원, 이종서, 정성라, 정영숙
▪ 2반(26명) - 강춘자, 계명의, 김경호, 김동형,
김영석, 김영애, 김윤성, 김혜자,
민만홍, 박영석, 송재욱, 신선자,
오군자, 유연준, 유준자, 이 분,
이인희, 이정섭,이홍석, 임중규,
정성철, 정용연, 조명자, 조춘희,
채병원, 추영일

라파엘의 집

이순옥 권사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해있는 시각 중복 중증 장애 아동 공동체인 "라파엘의 집"은 우리교회에서 가까운 곳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근처에 있습니다. 16세 이하의 아동이 생활하고 있는 이곳은 부모가 있는 아이도 있지만 대다수의 아이들이 버려진 아이들입니다. 김군중집사님이 주관하시고 강재덕권사님, 유혜정권사님, 김영자집사님, 그리고 정광신 사모님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한달에 한번 가서 봉사하며 행복나눔 캠페인으로 후원금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가 하나만 있어도 자유롭지 못한데 중복으로 장애가 있어서 이곳의 아이들은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며 baby seat에 앉아서 하루 종일 생활합니다. 발바닥은 한번도 서보지 못하여 말랑말랑하고 소화기능도 약하여 모든 음식을 잘게 썰어서 조리한 후에 먹여 줍니다. 처음에 갔다 와서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울해지고 또다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봉사하는 젊은 청년들을 생각하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루종일 같은 말만 되풀이하는 효진이를 제외하고는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 주었을때 주영이가 "물"이라는 말을 했어요. 나는 너무 신기하여 그곳 선생님에게 물어 보았더니 지난달부터 쉬운 단어를 말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말을 듣는 순간 기운이나고 무엇인가 더 해주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나서 목욕탕안의 그물 침대에 올려놓고 샤워를 시켜주면 시원한 표정을 하고, 안고 나와서 내복을 입혀주면 아이들 얼굴이 마치 행복한 천사 같이 보였습니다. 보살핌은" 많은 접촉과 도움과 관계와 격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그늘지고 소외된 아이들에게 물질적 도움 또는 노력봉사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라파엘의 집에 우리 교우 여러분! 사랑과 관심을 보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세례를 준비하는 마음

오은수 교우

어느날 부터인가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 기도를 시작한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강요한 것도 아니지만 어느 순간 마치 물이 산에서

바다로 흘러들 듯 그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 생활 속 어느 곳에나 주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을 잡고 이끌어주시며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순종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선물 주머니

유혜정 권사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사랑의 선물 주머니' 행사를 했다. 1차 행사를 한 경험이 있어서인지 너무도 자연스럽게 모든 교인이 동참 해 주었다. 참 감사한 일이다. 2011년 11월 27일 ~ 12월 11일 까지 주머니를 나누어 주었고, 12월 31일 까지 수거하여, 참으로 많은 물품이 수집 되었다. 1차 때와는 달리, 새 물건과 생활용품 만을 걷는다고 광고를 한 때문인지 비교적 깨끗한 물건들이 수집 되었다. 수량을 일일이 다 기록 할 순 없지만, 필요한 기관에 전달 할 만큼 수집 되었고, 아래와 같이 전달하였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전달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기 관	물품내용(전달자)
독거노인 반찬 배달	43가구-치약2개,비누1개 (독거배달팀)
라파엘의 집	수건, 옷, 생필품 2 박스 (이순옥 권사)
마가렛 지역 아동 센터	생필품 1박스 (이정섭 장로)
열린문 복지원	문구, 생필품 2박스 (이중서 장로)
예담원	수건, 옷, 생필품 3박스 (백종관 장로)

유년부 · 소년부 소식

추원석 전도사

저는 경북 포항에서 2남 중 맏이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저의 집은 아주 유복하진 않았지만 포항제철에서 성실하게 근무 하시던 아버지 덕분에 크게 부족함 없이 자랄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가

정은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신 어머니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신앙의 여러 체험들을 통해 열정적인 복음의 증인이 되셨고, 지금도 교회 안팎에서 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봉사와 섬김의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며 교회에서는 교회학교의 신앙교육 통해, 가정에서는 가정예배와 또 부모님의 삶의 본을 통해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포항에서 줄 곧 자라 포항제철고등학교를 졸업 후 대학진로를 앞두고 고민하던 중에 당시 포항장성교회의 담임목사님이셨던 정연수 목사님으로부터 신학대학교에 진학하여 목회를 하면 좋겠다는 강한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새벽기도를 마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디모데후서 2장 20~21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였고 그 길로 대구 가까이 경산에 위치한 영남 신학대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교에서 알게 된 선교단체 예수전도단의 대학생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구체적인 기준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되어 떠났던 중국과 이란 등 나라 안팎의 전도여행들은 한 영혼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시간들이었고 어느 곳에서든지 선교사의 마음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대한민국 해군 병장 제대 후 학부 공부 중에 아내는 대학 졸업 후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고등학교 시절부터 양가 부모님의 허락 하에 교제해오던 저희 두 사람의 결혼을 온 교회가 기쁘게 축하해 주셨

고, 포항장성교회의 정연수 원로목사님께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이어 저희 부부의 주례를 맡아 주셨습니다. 저희 부부의 결혼 예배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제 생애 가장 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결혼 후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보물을 들 주셨는데, 첫째는 예음입니다. 예음이 태중에 있을 때 저희 부부에게 이 아이가 예수님의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리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둘째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소망을 주셨을 때 저희 가정은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와 교회 사역과 생활고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소망이란 이름에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소망이 되리라는 마음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한 저희 가정의 삶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오늘에까지 신학대학원 입학과 더불어 가정의 이사와 안동교회로의 임지 확정들을 경험하며 요즘 저희 가정은 저희의 바람보다 크시며, 저희의 계획보다 철저하시며, 저희보다 저희 가정에 더 큰 책임감 있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유·소년부를 섬기면서 제가 만나고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아이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중고등부수련회

최진오전도사

중고등부는 2012년 1월 27일부터 28일까지 'With you' 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버랜드(케빈 브릿지 호스텔)로 겨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세찬 겨울이라 날씨가 많이 걱정되었지만, 생각보다 따뜻한 온도를 주셔서 은혜롭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첫 날은, 도착하자마자 여는 예배를 드리고 조를 나누어 대여해온 도미노 퍼즐을 맞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시간 반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완성될 즈음에 연속된 실수로 결국 완성하지 못한 채 마무리를 해야 했습니다. 그 후, 조별 토론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기존의 성경 공부와는 다르게 '하인츠의 딜레마'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서로 토의하고 조별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별 발표를 들으면서 아이들의 생각이 얼마나 성숙하고 깊은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는데, 아이들이 발표했던 것처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 프로그램은, 설문지에서 가장 호응이 높았던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현재 SBS에서 인기리에 방영중인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벤치마킹하여 우

리 중고등부에 맞게 적용한 게임이었습니다. 조별 미션 게임으로 변형하여 진행해 보았는데, 아이들의 불타는 승부욕이 한층 즐거움과 재미를 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의 호응이 좋아서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 때도 한 번 더 기획을 해 볼까 합니다. 그렇게 우리 중고등부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조별 장기자랑 시간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8장의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이 나오는 본문을 주고, 현대 상황에 맞게 각색해 보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즉, 주제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아이들 모두 개그콘서트를 차용하여 나름대로 재밌게 각색을 해보았는데, 이를 통해 안동의 밤에 대한 꿈도 한 번 꾸보았습니다. 그 후, 아이들과 둘러 앉아 진솔한 삶을 나누며 한 시간 반 정도 기도회 시간을 갖고, 학생 임원들이 준비한 일대일 데이트를 통해 그 깊이를 더하였습니다. 첫째 날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줄 알았으나 아이들은 새벽 2시까지 놀고 새벽 3시에 다시 일어나 실컷 떠들었습니다. 둘째 날은 조별로 신약 주요 성경 구절을 암송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놀이동산에서 간식비가 걸린 것이라 조원 모두 단합하여 열심히 암송을 했는데, 2년 넘게 수련회 때마다 암송을 하여 아이들의 내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꿈틀거릴 거라는 기대감이 솟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오후 4시까지 에버랜드 놀이동산에서 신나게 노는 시간을 갖은 후 교회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중고등부가 발전하고 성장하는 게 눈에 보이는 요즘,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는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합니다.

이승민 전도사

201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안동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 하나님의 깊은 임재하심을 맛보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로운 한해를 맞이하다보면 바뀌는 것이 생기기 마련이어서 아쉬움이 들곤 합니다. 유치부도 이를 피해갈 수 없이 정들었던 4명의 아이들을 아동부로 올려보내야 했습니다. 유치부의 만형과 만 누나로서 함께 찬양과 율동을 하며,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이제는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 아쉬움이 한층 커져갑니다. 하지만 몸이 성장하는 만큼 지식과 마음이 성장해야 하고,

형과 누나들이 있는 아동부에서 함께 지내며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니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이들을 보낸 서운한 마음을 위로하려고 하시는 듯이 유치부에 귀여운 아이들을 선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영아부에서 올라온 정현이, 지우, 준호, 건이, 서연이, 동건이가 그 주인공들입니다. 새해의 첫 유치부 예배를 드리는 날, 아이들이 부모님의 손을 잡고 유치부 예배실로 들어옵니다. 아이들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네요.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환경에 많이 조심스러워 보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사랑의 몸짓으로 아이들을 맞이해도 아이들의 긴장감이 쉬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배실 안에서 요리조리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기도 하고, 누가 다가가기라도 하면 부모님 뒤에 숨어버리곤 합니다. 곧 신나는 율동과 찬양 시간이 시작됩니다. 다른 형, 누나들이 찬양과 율동을 하려고 예배실 중앙에 서있으니 새로운 친구들도 그 사이에 수줍게 섭니다. 신나는 찬양 소리와 함께 선생님이 찬양과 율동을 시작하자 유치부 친구들이 따라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이내 율동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율동을 했지만 점점 마음을 열고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여운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는 선생님 손에 이끌려 공과공부를 하러 갑니다. 내심 잘 할 수 있을까, 지루해하지는 않을까, 적응하지 못하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는 방을 살며시 들여다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초롱초롱한 눈으로 선생님을 바라보면서 집중하고 있었고, 선생님을 따라 만들기도 하고 색칠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척척 해냅니다. 작년까지 영아부에 있던 아이들이 적응을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는데 막상 아이들이 유치부에 오고 나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한달 정도 지났을 뿐인데 이전부터 함께 유치부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와 같은 아이들을 유치부에 보내주신 것도 감사한데, 아이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유치부에 오는 것 같아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과 순수한 눈망울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도 그리 사랑하시지만, 나같이 다 성장한 어른도 그런 눈빛으로 사랑스럽게 바라보시지 않을까 멋진 상상을 해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린 양들을 잘 보살피며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안동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영아부에 올라온 아이들뿐만 아니라 유치부의 모든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중보기도해주세요.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총회 최대 개선 과제, '선거 문화'

본교단 소속 장로들은 총회의 최대 문제점으로 총회 선거 문화를 손꼽았다. 교단의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 총회 제2연수실에서 총회 장기발전연구위원회(위원장:고시영) 주최로 열린 제2차 정책토론회에서는 총회의 최대 과제로 총회 선거 문화를 손꼽았으며 그 뒤를 이어 신학교육을 지적하는 등 총회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발전 방안 등이 제안됐다. 목회자에 이어 평신도 지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선거제도와 관련해 가톨릭에서 교황을 선출하는 방식 도입을 비롯한 제비뽑기 방식, 기존의 선거방식 고수 등 여러가지 의견을 제안했다. 이날 정책토론회에서는 또 현 신학교육과 관련해 신학교 졸업자격 강화를 비롯한 신대원 통합 방안과 목사 사례비의 평균화, 목사고시의 개선, 목회 현장에 필요한 신학교육 실시 등의 의견들이 쏟아졌다.

한편 고시영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정책토론회에서 오정호 장로부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총회에서 활동하면서 선거문화가 가장 문제였다"면서 "선거문화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장 고시영목사는 이번 정책토론회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 "본교단 총회는 저성장과 현금 감소, 총회

노회에 대한 불신, 금권선거, 목사 장로간의 갈등 등으로 위기에 빠져 있다"면서 그 원인으로 △자기도취 △사회현상 △목사장로간의 갈등 △장기계획 부재 △신학교육 부재와 실패 등을 지적한 후, "장기발전연구위원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수립해 총회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회 1백주년에 대한 연합운동사적 평가> 총회, 연합의 중요성 발견하고 에큐메니칼운동 앞장

1. 일제하 (1910~1945)

1912년 조선야소교장로회 총회는 일제의 조선병탄(1910)과 105인 사건(1911) 직후에 결성되었다. 장로교 총회는 민족의 고난과 신앙적 박해의 한 가운데서 탄생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 연합운동은 '재한복음주의 선교회연합공의회'(1905년 설립)를 통해 선교사들이 주도하였다. 한국교회가 20만 명의 교세로 성장하고 토착지도력이 자라면서 조선교회는 '조선예수교장감협의회'(1918)라는 연합기구를 만들었다. 그 목적은 친교, 선교협력, 정보교환이었다. 한편, 장로교회는 1907년에 '만국장로교연합총회'(WPA, 개혁신교회연맹의 전신)에 가입하면서 세계장로교회와 국제교류를 시작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1920년대 일제의 문화통치 아래서 한국교회는 사회주의자들과 지성인들로부터 반지성적이고 현실 도피적인 교회라는 비난을 받으면서 교회연합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다른

한편, 한국교회는 '국제선교협의회'(IMC)와 접촉을 시작했다. 1924년 9월 24일 선교사들과 장감교회는 조직을 통합하여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KNCC)를 탄생시켰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출발이었다.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는 반기독교운동과 신사조의 도전에 맞서 신학교육의 질적 상승, 신문방송을 통한 전도, 절제운동, 농촌운동에 기여했다. 예루살렘 IMC대회(1928)에 참석했던 장감의 지도자들은 귀국하여 양교단에 농촌부를 설립하고 농촌계몽운동을 전개했다. 1930년대 한국교회는 사분오열되어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굴복

했다. 서북 교권과 남부교회들 사이에 교권갈등, 신학적인 보수와 진보 사이의 대립, 장로교신학과 감리교신학 사이의 괴리감 증대, 선교사들과 교권에 반발한 소종파 운동들, 안창호의 홍사단과 이승만의 동지회에 연루된 기독교민족운동 세력 사이에 분열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장감 양교단은 찬송가와 신문을 따로 발행하게 되었고 선교분할 협정도 폐기되었다. 일제는 이러한 교회분열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왔다. 1938년 신사참배 굴

복 이후, '조선예수교연합공의회'와 '조선주일학 교연합회'가 해산되었다. 1945년 8월 1일 한국교회는 일본기독교조선교단으로 통합되었다.

2. 해방 후 분열 (1945~1960)

해방 후 '조선기독교단'은 1년 만에 해체 되어 교파 환원이 일어났다. 그러나 '조선기독교연합회'(KNCC)는 연합기구로 남았다. 1948년 총회는 김관식목사(한국기독교연합회 총무)를 세계교회협의회(WCC)에 대표로 파송하면서 WCC의 창립회원이 되었다. 1954년 에반스틴 WCC 총회에는 에큐메니칼 측을 대표하는 김현정목사와 한국복음주의 협의회(NAE)를 대표하는 명신흥목사, 유호준목사(NCC 총무)가 참석했다. 1950년대 NCC는 한국전쟁 이후 세계기독교봉사회(CWS)를 통해 들어오는 구호물자를 보급하는 일에 주력하였고, 반공과 교회성장을 위해 이승만정권을 지지하였다. 이 시기 한국장로교회 안에서는 고신과의 분열(1952), 기장의 분열(1953년), 통합과 합동의 분열(1959년)이 일어났다. 장로교회의 연속적인 분열은 동족상잔과 민족분단이 영구화 되는 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에 더 비극적이었다.

한편 장로교 총회는 1957년에 동아시아기독교협의회(EACC,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의전신) 창립총회에 전필순목사, 계일승목사, 박병훈목사를 파송했고, 같은 해 아프리카 케냐에서 열린 가나 IMC에 한경직목사와 유호준목사를 파송했다. 가나 IMC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IMC와 WCC의 통합을 결의했는데, 그 영향을 받은 북장로회 선교부는 행정기구로서 선교회를 해체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안에 협동사업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3. 후퇴기 (1961~1970)

1960년 교단 총회는 합동측과의 재연합을 고려하면서 WCC탈퇴를 결의했다. 1969년에 수송교회 김용준목사의 발의로 경기노회가 WCC 재가입을

총회에 현의할 때까지 통합교단은 10년간 WCC와 관계를 단절하면서 에큐메니칼 활동에서 크게 후퇴하였다. 한편 기장은 1961년 뉴델리 WCC 총회부터 정식회원으로 참석했고, 강원용목사는 1968년 읍살라 총회에서 중앙위원이 되었고, 1975년 나이로비 총회에서 실행위원이 되었다.

4. 회복기 (1971~1980)

교단 총회는 나이로비 WCC 총회에 김형태목사, 김윤식목사, 노정현장로를 파송했다. 그 여파는 교단의 사회선교정책에 즉각 반영되었다. 1977년에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교회 선교정책'을 발

표하여, 교단의 선교정책이 에큐메니칼적임을 명시했고, 1978년에 '도시산업선교원리 및 지침'을 발표하여 산업선교 활동을 보호했다. 1980년 12월 8일에는 고신 기장 통합 합동의 총회장 및 총무가 모여 '장로교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하였는데 이것이 '장로교총연합회'의 출발이었다.

5. 성장(1981~현재)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에 이르는 동안 예장 통합 교단 안에서 민주화 인권 운동과 사회선교를 수행하는 청년 여성 목회자들의 지도력이 크게 성장했고, 이것은 통합 교단 안에 에큐메니칼 운동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1983년 밴쿠버 WCC 총회에서 김형태 목사가 최초로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이 시기 정부는 WCC를 좌경·용공으로 매도하였는데, 제69회 총회(1985)는 'WCC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제70회 총회에 그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여 WCC를 바르게 알리는데 기여했다. 1998년 하라레 WCC 총회에서 이삼열 교수가 중앙위원에 선출되었고, 2006년 포르토 알레그레 WCC 총회에서는

박성원 목사가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었다. 2008년부터 금주섭 목사가 WCC 전도와 선교위원회(CWME) 총무로 일하고 있으며, 2010년에 김동성 목사가 WCC 아시아지역 담당자로 일하고 있다.

세계개혁교회연맹은 1989년 제22차 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였고, 박성원목사는 WARC의 협력과 증언부 총무(1995~2006)로 섬겼다. 같은 해 교단 총회는 세계선교협의회(CWM)에 회원교회로 가입했고, 1991년에는 CWM 총회를 한국으로 유치했다. 그 후 금주섭목사가 CWM의 선교기획국장(2003~2008)을 역임하게 된다.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와 관련해서 교단의 청년 대표였던 장운재

씨가 공동회장(1990~1995)을 역임했고, 안재웅 박사가 상임총무(2001~2005)로 섬겼다. 그리고 이홍정목사는 정의·국제문제·개발봉사국국장(2004~2006)으로 일했고, 올해 초 문정은목사가 신앙·선교와 일치국 국장으로 부임했다.

2012년 바뀌는 교육계, 이것만은 '꼭' 주목하기

2012년도를 맞으며 기독교교육 관계자들이 관심 갖고 눈여겨봐야 할 사안들이 있다.

우선 올해부터 전국 초·중·고가 '주5일 수업

제'를 전면 시행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말이 여유로워지며 나들이 가는 가정이 늘어날 것은 예상 가능한 일이다. 교회학교 출석률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교회마다 학부모와 학생 모두의 욕구를 충족할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총회 교육자원부와 기독교교육 기관들은 계속해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열고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있어 기독교교육 관계자들의 관심과 정보 공유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의회가 지난 12월 19일 '서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킨 것도 기독교계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조례 가운데는 도덕적 가치를 흔들 동성애와 임신·출산에 따른 차별 금지와 기독교학교의 선교를 억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본교단 총회를 중심으로 한국교회 전반에서 전면 폐기를 위한 연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총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서울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조례안의 재의를 요청하면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월 10일까지 20만 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올해 고등학교 입학생부터 정부의 '역사교육 강화방안'에 따라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배우게 돼 교회 내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올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현행 역사교과서가 기독교 서술 부분을 지나치게 왜곡하고 축소하거나 심지어 폄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들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기독교가 어떤 기여와 공헌을 했는지 학교 수업을 통해서 습득할 수가 없다. 본교단 총회에서 역사교과서 내용

개선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교회사학계는 "교회 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대로 된 기독교 역사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과학교과서에 나타난 진화론의 오류를 개정하려는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교과서진화론개정추진위원회(회장:이광원)는 지난 12월 5일 고교 과학교과서 내용 개정을 위한 청원서류를 교육과학기술부 등 5개 기관에 발송했다.

주 골자는 '시조새는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종이 아니다'라는 것. 위원회는 "시조새가 반 파충류나 반 조류가 아닌 멸종된 조류"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독교교육 전문인 육성 및 건전한 기독교사회 문화 조성

복음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함께 시작한 사역이 기독교교육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곳곳에 기독교학교를 설립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독교교육을 실시했다. 이처럼 기독교교육은 한국교회가 출발할 때부터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실, 기독교교육은 학문으로 정립된 지, 2백년도 되지 않은 학문이다. 그렇다고 기독교교육이 이전에는 없었던 것은 아니고 교회와 함께 출발했지만 학문의 장르로 자리잡게 된 시기가 이 정도라는 의미다.

국내에 기독교교육학이라는 학문이 들어온 후, 이를 연구하는 학자들 중심으로 조직한 학회가 곧 한국기독교교육학회(회장:장화선)이다.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실시돼 오던 기독교교육이 학문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것은 1960년에 들어와서다. 이전까지는 교회학교 실천 중심의 시기였지만 1960년부터는 기독교교육학이라는 학문적인 연구 시기로 돌입하게 된 것. 이와 관련, 장화선교수(안양대)는 "기독교교육학이 학문으로 연구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숭실대학에서 기독교교육학과가 설립되면서부터"라며 "당시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기독교교육학자들이 기독교교육의 이론을 국내에 소개하면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학회가 설립된 당시에는 숭실대학교 기독교교육과 학과장이던 주선애 교수와 고 장운철교장(신일고), 연세대 이성화교수

등이 모임을 시작했다. 이들은 학회 설립목적을 기독교교육의 학문적 발전과 실천적인 발전에 기여하고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하는데 맞췄다. 이렇게 출발한 학회는 지난 50년간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대학에서 기독교교육의 전문인 육성,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건전한 기독교 사회문화 조성 등에 크게 기여해 왔다. 육학회는 신진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발표할 춘계·추계학술발표회와 기독교교육학의 최근 학문의 주제를 연구하고 교류하며 담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연차 학술대회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학회가 펼치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 4월 춘계 학술발표회를 비롯해 6, 7월 하계 학술발표회와 정기총회, 10, 11월 추계 학술발표회, 그리고 10, 11월에 한국기독교학회 학술대회 등이 열리고 있다. 특히 학회는 보다 깊이 있는 연구활동을 위해 학회

안에 기초이론 교회교육 교육미디어 성인교육 여성교육 학교교육 영성교육 통일교육 등 8개의 분과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육학회가 펼치는 또 하나의 활동은 회원들이 연구한 결과를 기독교교육학에 관심있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정기적인 학술지를 발간하고 기독교교육학 관련된 출판물을 발행하고 있다. 장화선 교수는 "회원들이 춘계·하계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국내외에 보급하기 위해 '한국기독교교육 논총'을 발간하고 있으며 또한 기독교교육학의 각 영역별로 연구한 총 25권의 기독교교육학 기본교재 총서를 발간 중에 있다"고 학술자료 발간에 대해 소개했다.

특히 학회의 학술지인 '기독교교육 논총'은 학회 창립 35주년인 지난 1996년에 창간호를 발간했고 10년이 지난 2006년 12월에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재 후보지'로 선정됐으며 3년 후인 2009년부터 '학진등재지'로 승격돼 지금까지 한국기독교교육학 성장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난 2001년에는 창립 40주년을 맞아 기독교교육학을 전공하는 신학생들이 갖춰야할 학문적인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총 26권으로 구성된 '기독교교육학 기본교재 총서'를 발간하기로 하고 지금까지 신학대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교재를 발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학회 산하에 부설로 출판사 '기독한교'를 설립해 기본교재 총서와 전문도서를 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학회는 국내외 기독교교육학과 관련된 학회와 학술적인 교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21세기 정보와, 지구화시대의 다양한 관심과 기독교교육현장의 요청들을 학문적인 논의로 담론화시키고 있다. 또한 기독교교육 현장인 국내 여러 교단과 기독교교육 유관 기관들과 공동으로 학술연찬과 교육집회 등을 개설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담론과 실천적인 현장의 성찰 결과를 연계시키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 해외에서 기독교교육을 전공한 학자들이 속속 국내로 들어오고 있어 학회의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의 상황에 적용할 기독교교육학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일도 학회에 주어지고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신천지' 교육강사 탈퇴 "신천지는 북한체제 방불케 한다"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신천지'의 교육강사가 최근 탈퇴해 실체를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6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신천지' 탈퇴자라고 밝힌 지명환씨는 "2001년 '신천지'에 입교해 10년 간 그곳에서 지냈다"며 "부산 야고보지와 마산교회 입교 후 구역장과 전도회장, 교육부장 등을 거쳐 교육강사로 7년간 강의를 맡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 씨는 탈퇴 이유에 대해 "교리가 항상 변경되는 것을 보고 거짓된 곳임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부패하고 타락한 교역자들의 도덕성과 (교주) 이만희씨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들, 위장단체를 통한 속임수 포교, 노동력 착취 등 '신천지'에서는 북한체제를 방불케하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교회에 사죄의 뜻을 밝혔다. 지 씨는 "피해를 당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교회와 성도, 부모와 자녀를 잃은 분들의 사연을 마주해보니 '신천지'가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심경을 고백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신천지' 고위간부(교육장)를 지내다 탈퇴한 신현욱씨가 동석해 최근의 '신천지' 현황을 알리기도 했다. 신 씨가 내부문건을 입수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계획 중에 "신학교에 파송할 강사, 전도사, 선교사 양육 및 적극적 활동"이 있어 전국 신학교가 입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총회 · 연합회 · 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 (<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북존우물가

2012년 2월호 · 통권 제 219호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 황 영 태

편집인 : 안 종 혁

안 재 훈

발행일 : 2012년 2월 10일